

지역 소식통



고창수박 홍보 직거래행사 개최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남귀)이 29일 고창군에서 생산하여 선별된 수박을 알리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노원구와 인천중구, 대구 북구 각 노조에 고창군과 고창수박 홍보하는 직거래행사를 개최했다.

고창군은 명품수박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연구 및 전문인 양성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현재까지도 전국 최고의 수박, 탑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다.

고창군노조는 2013년부터 고창수박 홍보판매 행사를 시작해 기간 우박피해 등 농산물 유통관리가 저조할 때마다 농가와 황토배기유통회사를 연계해 수박판매와 소비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고창군노조 안남귀 위원장은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직거래하여 노원구를 비롯한 협약을 맺은 노조를 통해 고창군과 고창농산물의 선호도와 인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 도시지역의 공무원노조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항토멜론

소비자 선정 품질만족 대상 수상

고당도 · 고품질 전국 소비자들 '각광'

달콤한 맛과 향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고창항토멜론'이 2017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수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29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조선일보와 (주)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 열린 '2017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농·특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품질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품질 구현에 앞장서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품목에 대해 소비자들의 직접 투표와 산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받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고창항토멜론'은 청정 자연환경에서 멜론 재배에 최상인 일조량과 온도차, 미네랄이 함유된 황토 서해안 해풍 등 최적의 조건에서 자라 육질이 부드럽고 15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를 자랑해 최고의 멜론으로 전국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군은 그동안 '멜론 명품화단지' 육성을 위해 읍면별 작목반과 연구회를 조직해 공동선별과 포장 등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일괄관리를 통한 품질유지를 해왔다.

'고창항토멜론'의 우수한 품질이 전국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어 대도시 백화점 등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를 넘어 홍콩 과일시장에 수출하는 패거리를 올리며 명품 멜론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올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탐과제 단지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제8회 201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수상과 '2016 농촌진흥청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으며 최고 품질 멜론으로 입지를 단단히 다져가고 있다.

박우영 고창군수는 "농인들의 땅과 정성 열정과 노력이 가득 담긴 고창항토멜론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이어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홍보 마케팅으로 수박, 복분자, 풍천장어에 이어 고창멜론을 지역을 대표하는 신브랜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음시청 단풍미인 씨름단 박정의 전국씨름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

오준영 일반부 소장급 · 최인호 장사급 3위 차지

정음시청 단풍미인 씨름단 박정의가 제7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개인전 역사급(108kg)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선수는 통합씨름협회 주최로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인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전에서 창원시청 이광재를 2:1로 제압했다.

대회에서는 박선수 외에도 일반부 소장급(80kg) 오준영과 장사급(145kg) 최인호가 각각 3위를 차지했다.

김생기 시장은 박현영 감독과 선수들을 축하 격려하고 "남은 시즌과 내년에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둬 선수 개인의 영예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물론 정읍을 알리는 데도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은 지난해 창단 이후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수도권 귀농체험학교 운영

부안군(군수 김종규)의 2017년 제2기 수도권 귀농체험학교 운영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출판만 갯벌생태공원과 귀농 선도농가 사업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운영됐다.

수도권 귀농체험학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32명을 대상으로 정착희망지역의 맞춤형 정보 체계적 전달과 선도 귀농 성공사례 등 다양한 체험과 견학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정착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이다.

첫날 환영사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는 "농업농촌이 미래 이거 그 해답이 바로 부안"이라며 "6차 산업의 중심지와 새로운 비전의 땅 새만금 도시 부안에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 활동 소개, 부안군 농업정책과 지도사업,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귀농체험학교는 선배들의 성공사례를 맞춤형 견학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조기 정착에 필요한 지역의 기초정보를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지속 추진

내년부터 7개 사업 22억원 사업비 투입 선착장 호안시설 보수·복지회관 건립

'도서개발 촉진법'을 근거로 수립한 연차별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고창지역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섬인 부안면 봉안리 내죽도의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올해 국비 2억 400만원 등을 들여 지난 3월 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섬마을의 안길포장, 방파제 설치 등 정비공사를 이달 중순까지 실시해 완료했다.

그동안 고창군에서는 섬 전체면적이 49,372㎡이고 28가구, 60명 정도가 거주하는 내죽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010년 갯벌건강공원 및 전망대 설치, 2011년 부안교 설치, 2013년 하수도정비사업, 2016년 방파제정비사업 등을 추진했다.

내년부터 추진될 제4차 종합계획에는 7개 사업에 22억원의 사업비가 내죽도에 투입될 예정이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복지회관 건립, 선착장

호안시설 보수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우영 고창군수는 "섬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득증대·일자리·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음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 내달 1일 개장

해마다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 인기가 높은 정음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하 칠보물놀이장)이 7월 1일 개장된다.

시는 7월 두 주간의 주말개장(7월 1일과 2일, 8일과 9일)을 거쳐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칠보물놀이장은 매주 월요일 휴장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정음시민인 경우 어린이는 2000원, 청소년은 3000원, 성인은 4000원이다. 단,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음지역 외 거주자는 어린이는 4000원, 청소년은 5000원, 성인은 6000원이다. 또 20명이상 단체 입장 시에는 거주에 관계없이 20% 감면된다. 12개월 영유아는 무료이고,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과 보호자 1인,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과 그린카드 소지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50% 할인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성모병원-전주예수병원 업무협약 체결

부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건강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부안성모병원과 전주예수병원과 업무협약이 지난 28일 오후 3시 부안 성모병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이재훈 병원장, 배윤오 재

정원장, 전주예수병원 윤용순 대외협력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역민의 건강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상호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서는 부안 성모병원과 전주예수병원이 환자진료, 교육, 연구에

관한 체계적인 협력을 구축해 관내 주민의 편의 도모를 하려고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해 근접 진료 편의제공을 높게 됐다.

이재훈 병원장은 "부안군이 의료복지에 취약한 점이 많은데 전주예수병원과 업무협약으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상호간에 신뢰를 쌓아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해경,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수상 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성철)가 내수면 수상 레저사업장과 수상 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등에 대해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부안 해경은 지난 29일 장수군에 대해 부안 해경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전북도청 및 해당 시·군 등이 참여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수상 레저사업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 및 장비·기구의 안전성 등 안전 점검과 직결된 수상 레저사업장 및 장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조성철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은 "수상 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사고발생 요소·안전위해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한 내수면 수상 레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